

# 무등산 둘레길 50km 생긴다

## 광주시, 15개 코스 '무등길' 복원키로 올 하반기 노면정비 ... 표지판 등 설치

무등산 도립공원 둘레 50km를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정비된다.

광주시는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무등산 자락을 한바퀴 도는 '무등길'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등길은 100년 이상 된 옛길로, 북구 각화동~청옥동~충효동을 거쳐 담양 남면~화순 이서~안양산휴양림~너와나에목장~동구 용연마을~광주생태하천길~폐선부지푸른길에 이르기까지 모두 15개 코스가 이어지며 총 길이는 50km에 이른다.

광주시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무등길 복원 여부를 검토해왔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박승필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팀을 구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100년 이상 된 고지도 등 문헌을 찾아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해 전통마을들을 잇는 무등산 자락길의 노선을 찾아낸 바 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노면정비에 들어가 오는 2011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모든 구간을 공개할 계획이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모두 15개 코스 가운데 1차로 1길~4길(북구 각화동~청옥동~충효동~담양 남면 연천리, 12km)와 12길~13길(동구 선교동~용연마을~화순 수

만리 너와나에목장, 6km)의 노면정비를 완료, 현재 안내표지판 등을 제작·설치중이다. 담양과 화순 구간인 5길~11길(25km)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공원사무소는 물론 4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내년말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무등길은 광주의 랜드마크인 무등산 자락 길로 '정상 정복형 탐방문화'를 개선하고, 200~400m 높이의 무등산 자락을 걸으면서 그 안에 스며있는 전통문화 유적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인근 담양, 화순까지 연계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문화적, 역사적 소통의 길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시는 또 무등산 자락의 자연환경과 마을 지명 등 인문환경을 조사하고, 주변 역사를 발굴해 무등산에 얽힌 역사적 가치를 높여 무등산 옛길과 함께 지역 명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다음달 2일 오전10시 제2수원지에서 무등산 자락 무등길 개방행사를 열고 동구 용연마을~화순 수만리 만연재(너와나목장)까지 6km 걷기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치 담그는 법' 아이폰으로 볼 수 있다

### 김치문화축제 프로그램 이달 말 출시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19일 "각종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김치메이커'를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김치메이커'는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과김치, 동치미 등 총 5가지 김치의 요리법(recipe)을 담고 있어 만들고 싶은 김치를 선택하면, 각 김치에 맞는 재료 선택부터 손질, 담그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 김치 재료의 영양가에 대한 상식과 좋은 재료를 고르는 방법도 익힐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면 누구나 아이

폰 앱 스토어에서 응용프로그램 김치메이커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는 스마트폰 열풍 속에 김치 문화 축제와 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 김치와 축제를 알릴 것"이라고 출시 배경을 밝혔다.

제17회 세계김치문화축제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 북구 중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버님 저희 왔어요"

추석을 맞아 19일 고향을 찾은 자녀들이 광주역에 마중 나온 부모에게 선물을 건네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이날 광주역에는 하루종일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F1 애니메이션 22일 EBS 방영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F1(포뮬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앞두고 F1 대회를 소재로 한 TV애니메이션 '렛츠 스피드 업(Let's Speed Up)-꿈을 향한 질주'가 추석인 22일 EBS 교육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전남도는 19일 "10월 영암에서 개최되는 F1대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 '렛츠 스피드 업'이 오는 22일 오후 2시25분 EBS

를 통해 특집 방송된다"고 밝혔다. '렛츠 스피드 업'은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를 꿈꾸는 주인공과 F1대회 챔피언들의 따뜻한 우정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30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의 자연환경과 영암의 F1 경주장을 배경으로 박진감 넘치는 F1 경주가 실감 나게 펼쳐지며 EBS 방영 이후에

는 케이블TV와 IPTV를 통해서도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애니메이션의 생생한 장면이 담겨진 애니메이션북과 무선조종 완구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출시하고 제작된 문화상품을 올해 F1대회 기간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올해도 조상님께 면목 없습니다

## "월드컵경기장 주변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 강운태 시장 밝혀

광주시는 17일 "서구 품앗동 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립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 이날 오후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의 제안을 받아 단기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일부 주차장 사용 후 장기적으로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 시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건립되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스케이트장 건립에 롯데마트가 참여하여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역 10개 단체 7370명에 이르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원들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주차 6구역을 주중·주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인구대비 문화시설 전남 3위

### 박물관 등 6.51개 ... 광주는 16개 시·도중 11위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16개 시·도중 열한 번째에 그쳤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은 전남이 6.51개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

별자치도(13.91개)였으며 강원(9.28개), 전남(6.51개), 경북(6.0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에 특화된 국립립 및 사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이 많아 전통적으로 문화기반시설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반면 광주는 2.60개에 불과해 인구 대비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으

###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제주	13.91	대전	2.90
강원	9.28	경기	2.73
전남	6.51	광주	2.60
경북	6.02	서울	2.38
충남	5.80	울산	1.80
충북	5.73	인천	1.75
전북	5.66	대구	1.73
경남	4.15	부산	1.49

(출처: 통계청)

로 꼽혔다. 특히 부산은 인구 10만명 당 문화시설이 1.49개에 불과해 전국에서 문화시설이 가장 적었으며, 서울도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평균(3.51개)에도 못 미치는 2.38개를 기록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풍성한 한가위

## "맛있는 식사로의 초대"

은 겨레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님의 가정에 보름달만큼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아이엘리시아"와 함께 건강과 행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21일 22일은 휴무일입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NAVER **다들** 아이엘리시아 검색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671-1199 . 유스퀘어 터미널 2F CGV옆